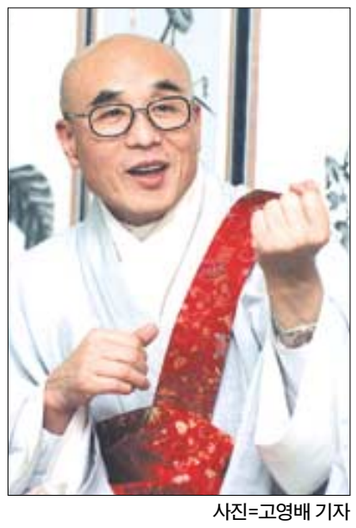
인/터/뷰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 2004년 주요 계획과 방향

"힘 있고 일하는 종단 만들겠다"

불교전통문화전수센터 불사 올 봄 착수
복지·환경 등 참여 활동 확대할 것

2004년을 맞는 불교 종단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이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올해 각 종단의 다양한 종책과 종무지표에서 이같은 변화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제2종단으로 꼽히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으로부터 태고종의 올해 주요 계획과 방향을 들어보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올해 태고종의 주요 종무지표는 무엇인가.

종단내에는 종단이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런 때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종단을 '힘 있고 일하는 종단'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먼저 종단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승려의 결혼과 개인을 우선시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종단발전을 이끄는 장점으로 부각시켜 나가겠다. 총무원장의 책임과 종도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종단 백서·안내자료 발간

▶종무지표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사업은.

총무원 청사가 입주할 불교전통문화전수센터 불사를 올해 봄에 시작할 것이다. 이는 제2종단의 위상을 세우는 미래지향적인 불사가 될 것이다. 종단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종단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법령집과 행정서식, 종전 등도 발간할 것이다. 이 외에도 승풍기강 확립을 위한 법계고시, 구족계 수계산림, 종조 탄신 기념사업 등도 계획되어 있다.

종단 외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역량을 중앙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중앙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인권·환경 위원회와 같은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등 종단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종교계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태고종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가.

종단의 역량은 소속 개개사찰의 활동에서 모아진다. 이를 중앙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태고종은 올해 소속사찰의 지역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실시되는 총선 때에는 바른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범종단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류를 바로잡는데 종교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태고종간 분규가 5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것인가.

조계종과 분규가 반세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현재진행형인데 대해 애석한 마음이다. 조계종은 조계종대로 태고종은 태고종대로 명분과 실리에서 양보하지 못한 면이 많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분규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올해는 조계-태고종간 분규 해결의 물꼬를 터 나가겠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불교는 종단 난립이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총무원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불교의 큰 틀을 다시 짜야할 시기가 된 것이다.

선교육 후 득도 제도 정착

▶종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묘책은.

교육체계 확립과 재정 안정은 태고종의 오랜 과제였다. 올해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여 종단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

먼저 종단의 교육체계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 태고종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동방불교대학에 신설한 승가과를 졸업해야만 한다. 또한 종헌·종법에 의거 행자득도 수계산림과 구족계 수계산림, 법계고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종단은 지난해부터 녹색장묘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단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 효과를 얻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생활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이다. 올해에도 이 운동을 전개해 수익을 종단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단 재정의 기본이 되는 분담금 납부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종단 소속 사찰은 총무원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에 종단 소속 사찰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공직 취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 희망 키우자"

▶새해 종도와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자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희망을 키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희망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살고 싶은 세상이 될 것이다. 올해에는 불신과 다툼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허 스님 100돌 기념사업 편다

관음종 기념사업회 구성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린다.

관음종 중앙종회는 1월 5일 인천 흥륜사에서 제41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이 사업을 추진할 기념사업회(위원장 지섭)를 구성했다.(사진)

이에 따라 관음종은 태허 대종사의 탄신 기념일인 10월 8일을 전후해 총본산 묘각사에 연혁비를 조성하고 법어집을 발간한다. 또 한·중·일 불교계가 참여하는 국제학술세미나와 국제보살계법회를 열어 태허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하기로 했다. 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45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앞서 관음종 중앙종회는 제10대 중앙종회 개원종회를 열고 의장에 법륜 스님(인천 흥륜사)을 추대했다. 또 부의장에는 경철 스님과 백제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삼론종 총무원 부장 인사

삼론종(총무원장 혜광)은 1월 5일 총무부장에 청봉 스님(서울 옥예원)을 임명하는 등 총무원 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교무부장에는 혜정 스님(인천 대불사), 재무부장에는 지겸 스님(청원 청국사), 규정부장에는 허부 스님(군산 삼정사포교당)을 각각 선임했다. 또 사회부장에는 성원 스님(괴산 보림정사), 문화부장에는 도연 스님(서울 관불사)을 임명했다.

금강대 장학제도 개선

천태종 종립 금강대(총장 박봉식)는 일정성적(평점 3.30) 이상을 얻어야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학생 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평점 3.30 이상인 학생은 학비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2.70 이상 3.30 미만인 학생은 수업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70 미만인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입생은 모든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

이와 관련 금강대는 "지난해 일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평가를 받는 등 전액 장학금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일정성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학업 의욕을 높임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진각종 새해 49일 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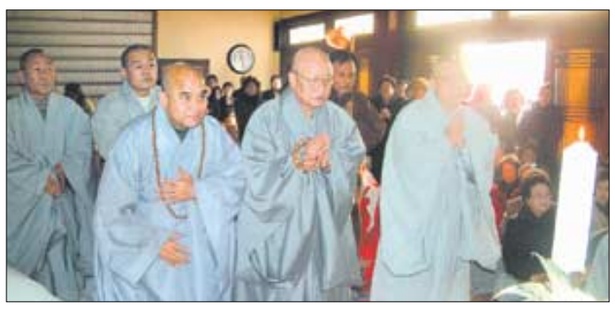
1월 11일 새해대서원 불공을 회향한 진각종은 1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 7주간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해 국내·외 심인당에서 새해 49일 불공에 들어간다.

49일 불공은 새해대서원불공에 이어 여러 조상을 위하여 행하는 추복불사로, 효를 바탕으로 하는 불교정신이 깃들어 있다.

동방불교대 입학생 모집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1월 14일부터 2004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을 위한 원서 교부를 시작한다. 올해에는 기존의 불교학과, 범패과, 불교미술과 외에 승가과가 개설돼 첫 신입생을 받는다. 승가과에서는 태고종 승려가 될 것을 목표로 불교내전을 공부한다. 교부기간은 21일까지다.

동방불교대학은 1982년 태고종에서 설립한 2년 과정의 전문불교대학으로, 태고종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불교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다. (02)745-2030~2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 49재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의 49재가 1월 9일 서울 법륜사에서 열렸다. 대륜문도회 대표 혜초 스님은 "덕암 스님은 일평생 수행과 종단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등 온 몸으로 후학들을 일깨워준 진정한 스승"이라며 "그 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수행의 채찍으로 삼아 더욱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종단 위상 높이자" 새해 다짐

조계종 태고종을 비롯한 각 종단이 신년하례법회와 시무식을 열고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서원을 다짐했다.

조계종은 1월 5일 서울 조계사에서 중앙종무기관 및 신행단체 시무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종도와 종무원, 불자들이 원융화합하여 불교와 종단 발전을 주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한 신행·포교 단체들도 1월 10~11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태고종도 1월 5일 총무원, 중앙종회, 중앙호법위원회를 비롯해 원로회의, 지방교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봉원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중앙종회 의장 인공 스님은 "종단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종도들이 공동운명체라는 투철한 종단관을 갖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종단내 불신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화합과 존중하는 종풍을 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총화종은 1월 9일 남양주 총무원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었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종도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아 올 한해 종단 내실을 튼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조동종(총무원장 심월), 삼론종도 1월 5일 서울 평창동 혜림사와 서울 등촌동 보리원에서 각각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고 종단 발전을 서원했다.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1월 7일 서울 구산동 총무원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박봉영 기자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신년(2004) 새해 새아침에
불자님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고운 맵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말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솜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고운 맘씨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여유롭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봉사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행복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보다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Ⅲ-1030]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정초신장기도
◎ 일시 : 1월 25일 ~ 2월 1일까지 오전 10시

입춘기도
◎ 일시 : 2월 1일 ~ 2월 4일까지 오전 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